

금요예배 설교노트 - 시가서 시리즈 (1)

설교자: 김영목 목사

"욥기 -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다" 욥기 42장 1-6절

- 주 제: 욥이란 이름은 '박해 받은 자'란 뜻이다. 그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고난 당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. 그래서 독자들은 책을 보며 "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가?"라는 질문을 묻는다. 독자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고 추측한다. 그러나 욥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. 오직 '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?', '그분은 우주를 공의에 따라 다스리시는가?'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준다.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신앙의 해석을 가능케 된다.
- 시대배경: 욥기는 기록연대도, 기록자도 알 수 없는 책이다. 따라서 정확한 연대는 측정할 수 없다. 욥이 140세가 되도록 오래 산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로 추정한다(욥42:16). 욥기의 배경이 되는 '우스'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. 에돔 땅 근처로 예상하고 있다.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(욥을 포함하여)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.

● 욥과 친구들의 3가지 논쟁

- 1.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?
- 2.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?
- 3.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?

● 욥기의 구성

서론, 1-2장 (산문 형식으로 기록됨)

- 1. 흠이 없고, 정직하고,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, 욥
- 2.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
- 3. 지상에서 일어나는 욥의 고난

본론. 3장 1절~ 42장 6절 (시 형식으로 기록됨)

- 1.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함 (3장)
- 2. 욥과 세 친구의 논쟁 (4-26장) (데만 사람 엘리바스 / 수아 사람 빌닷 / 나아마 사람 소발)

| 토론 1회전 | 엘리바스의 충고(4-5장) vs 욥의 답변 (6-7장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빌닷의 충고 (8장) vs 욥의 답변 (9-10장) |
| | 소발의 충고 (11장) vs 욥의 답변 (12-14장) |
| 토론 2회전 | 엘리바스의 충고(15장) vs 욥의 답변 (16-17장) |
| | 빌닷의 충고 (18장) vs 욥의 답변 (19장) |
| | 소발의 충고 (20장) vs 욥의 답변 (21장) |
| 토론 3회전 | 엘리바스의 충고(22장) vs 욥의 답변 (23-24장) |
| (소발 3차 없음) | 빌닷의 충고 (25장) vs 욥의 답변 (26장) |

- 3. 욥의 독백 (27-31장)
- 4. 엘리후의 반박 (32-37장)
- 5. 하나님의 말씀 (38-41장)
- 6. 욥의 회개 (42장 1-6절)

결론. 42장 7-17절 (산문 형식으로 기록됨)

- 1.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용서 (42장 7-9절)
- 2. 욥이 받은 축복 (42장 10-17절)